

소 교리문답 제22문

1. 오늘의 공부

| | |
|---------------|---|
| 제 22 문 |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
| 답 |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스스로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

2. 꼭 읽어야 할 성구

요: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3. 우리가 공부할 내용

- 제22문의 답을 자녀(학생)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성경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 지난주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죠? 하늘에서 미리 어른의 몸이 되셔서 세상으로 뛰어 내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여러분처럼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서른 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태어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죠? 남자의 몸입니까? 여자의 몸입니까?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도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여자, 그러니까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남자, 즉 아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빠와 엄마가 결혼을 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기는 하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남자 없이 여자 홀로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으면서도 우리와는 다르게 태어나신 겁니다. 무엇이 우리와 다른지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에게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였어요. 혹시 그 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 ‘마리아’입니다. 이처럼 남자가 없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가리켜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고, ‘성육신’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나, 남자가 없이 처녀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믿지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통 사람과는 다른 위대한 사람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독교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말들은 성경이 예수님이 대해서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실 수 있는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믿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시긴 했지만 죄인은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면서도 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남자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굳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를 범한 후에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간에게 죄를 범하게 한 사탄을 이기고 사탄에게 붙들려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오래 전에 약속을 하신 것이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자가 없이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으로 태어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엄마는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말고 천주교라는 종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으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아주 높이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리아를 그처럼 높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그냥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그저 평범한 여자였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리아가 보통 사람과 달라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4. 질문하고 토론해 보세요.

(선생님들은 공부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 주면서 토론으로 이끌어 가세요)

1) 정리를 위한 질문

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모두 남자와 여자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다릅니다.

②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을 낳은 여자(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없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가리켜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고, ‘성육신’이라고도 합니다.

③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죄인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면서도 죄인은 아니신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남자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④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를 범한 후에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간에게 죄를 범하게 한 사탄을 이기고 사탄에게 붙들려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오래 전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자가 없이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닌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2) 적용을 위한 토론질문

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5. 다음에 공부 할 주제 (꼭 암기해 주세요)

제23문 :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수행하셨습니까?

답 :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동시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6. 미리 읽을 성구

행3:22-23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